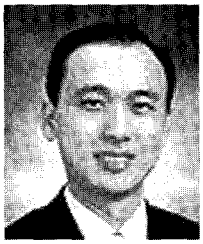
뒤섞이는 세상, 이젠 퓨전발명으로 승부를 걸자



발명컬럼니스트 이 태 훈
(invention@columnist.com)

'퓨전문화' 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앉아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 어느 날이든지 신문 한 귀퉁이에는 언제나 퓨전이라는 말이 자기집인 양 둥지를 틀고 세상을 향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다.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먼저 똬아리를 틀기 시작한 퓨전은 '퓨전재즈' 라는 말로 가장 쉽게 대중화되어 있다.

팝과 클래식의 만남, 정통 클래식한 재즈의 모던한 분위기?

과연 퓨전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영역과 장르가 파괴되고 혼합되며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무엇. 모 음악관계자는 새천년의 음악계는 장르가 혼합되고 전통이 파괴되며 디지털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기존의 범주로는 분류하기 힘든 음악형태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퓨전이 음악이라는 예술분야에서 음식으로 점점 넘어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퓨전음식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라는 짜여진 틀 속의 음식문화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뒤섞이는 새로운 입맛들의 음식이 등장하고 이것들이 선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쑥 소스와 라면 볶음, 타이칠리와 사과로 맛을 낸 아구회

이탈리아 음식을 먹더라도 전통적인 음식 맛 속에서 다양함을 찾고자 하는 신세대들의 취향이 퓨전음식의 개발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불고기와 김치를 햄버거, 피자와 결합시켜 내놓은 불고기버거, 김치버거, 불고기피자 따위가 히트하면서 그 성공 가능성이 점쳐진 퓨전음식은 '퓨전퀴진(Fusion Cuisine)' 이라는 새로운 메뉴이름을 탄생시켰다. 10년 전부터 등장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음식은 고추장에 버무린 파스타처럼 동양과 서양의 음식을 혼합해 새로운 맛을 창조해 낸 메뉴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로맨틱 스포츠룩' 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옷차림이 눈길을 끌며 유행의 바람을 타고 있다. 이름 그대로 로맨틱한 공주옷과 캐주얼한 스포츠옷을 함께 입는 형식을

말한다.

망사가 달린 공주풍 샤 스커트에 진 재킷 그리고 운동화, 진 바지에 분홍. 노랑 망사가 덧씌워진 예쁜 티셔츠 그리고 분홍 백

이런 옷들을 상상해보면 도대체 어느 누가 입을 것 같지도 않는 엉터리 짬뽕 코디인데도 최근 SJ, 롤롤, 도니라이크, INVU 등 10대 후반에서 20대 여성을 겨냥한 대부분의 여성복 브랜드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새로운 패션이다. 정장에 달린 모자를 보았는가? 이제 이 정도의 패션은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즉 퓨전문화의 바람을 타고 퓨전 패션의 시대도 함께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들에게 '크로스오버(crossover)'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점점 퓨전(fusiion) 성격으로 치닫더니 이제는 그 퓨전마저도 혼란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령 퓨전음악이라고 하면 음악의 범주 안에서 혼합되는 것들을 지칭할 수 있다. 대중가요에 클래식과 재즈가 들어가고 국악이 적절하게 버무려진 음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악이라는 하나의 장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제는 음악이라는 장르를 넘어서 미술과 음악이 만나고 조각과 음악이 만나며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분야들이 적과의 동침을 시도하고 있다. 모든 예술의 장르가 혼합되는 새로운 문화바람이 서서히 불어닥치고 있다.

신기술의 개발속도가 너무 빨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그 기류는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빨라지고 있다. 가능한 모든 영역의 문화들이 뒤섞이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술과 음악이 결합된 퍼포먼스가 열렸다. "프랑스 인상주의와 음악" 과 "베토벤과 조각가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또한 지난해 비발디의 사계를 발표한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는 독일의 유명화가 그라우프너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퓨전의 바람은 문화의 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어와 기존의 모든 통념과 가치관과 전통을 깨고 서로 뒤섞이며 화합할 것이다. 프린터와 스캐너, 그리고 복사기가 결합된 아이디어 상품은 퓨전의 이름에도 끼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였다. 최근 가전제품과 인터넷의 결합이 기술개발의 주도적인 입장에서 앞장서고 있다.

인터넷과 냉장고, 인터넷과 전자레인지, 인터넷과 세탁기.

이러한 제품군들은 새로운 영역의 혼합에 서 있지만 이미 인터넷이 삶의 중심에 서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앞선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대세인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갈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퓨전발명은 전통과 개념 그리고 표준의 파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벤처의 실험정신이 그 기준에 서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다시 꿰어 맞추는 새로운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정답이 아니며 표준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

가장 좋은 음원을 매끈하게 담은 CD가 최상의 음악일까? 최근들어 잡음이 들어간 로테크(low-tech) 음악이 각광받고 있다. 저질음반처럼 보여지는 찌직거리는 음반이 새로운 소리의 미학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불협화음이 새로운 화음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퓨전은 발명계에 소중한 시대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들이 이미 퓨전문화에 젖어있는데 발명가들은 기존의 법칙과 기존의 기술과 기존의 아이디어만 고집하고 있다. 새로운 천년의 발명가들은 모두 퓨전적인 사고방식으로 실험해야 한다. 가전제품만 인터넷과 결합되라는 법이 없으며 인터넷만이 새 천년을 이끌어가라는 법도 없다.

모든 것에 대한 부정, 해체 그리고 재결합. 이것은 퓨전발명으로 늘 새롭게 재창조될 것이다. 발특2000 · 06